음악교육공학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024. 10. 16. Vol.61, pp. 349~374
http://dx.doi.org/10.30832/JMES.2024.61.349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개발 및 수업설계 방안 탐색

임새롬* · 이세희**

음악과는 창작 혹은 연주의 연습과정 및 음악에의 몰입과 표현을 특성으로 하는 교과로서 기존 개념기반 탐구과정의 모형들은 대체로 음악 수업의 특징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적용 가능한 음악과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념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음악과 고유의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 관련 수업모형을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한 후 음악교육 연구집단의 숙의과정과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7단계의 수업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적용 예시를 위해 '변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음악과 수업을 제시하였다. 수업모형의 각 단계는 '관찰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정교화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의미화하기-전이하기-성찰하기'로써 음악과 고유의 특성인 '몰입하고 표현하기'가 중심이 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단계에서 '몰입하고 표현하기'로의 전개가 용이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수업모형은 음악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음악 분야에 전이하여 풍부한 음악 경험과 삶에서의 실천을 촉진하는 데 적합하며, 향후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다양한 수업적용 사례와 수업방법의 실천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검색어:** 개념기반 교육과정, 개념기반 탐구학습, 음악과 수업모형, 음악과 수업설계, 몰입

<목 차>

Ⅰ. 서론
Ⅱ. 개념기반 탐구학습
Ⅲ. 수업모형 개발 및 수업설계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교육부 2021). 이에 따라 역량중심의 2015 교육과정에 이어 개념기반 탐구과정이 강조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과정 적용 수업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통합, 삶과 연계, 학습에 대한 성찰'(교육부 2021)은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주요 특징과 일맥상통한다. 개념기반 탐구학습은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전이

* 서남중학교 음악교사
** 동명중·고등학교 음악교사

가능한 개념을 탐구하는 학습(Erickson, Lanning & French 2017; Stern, Lauriault & Ferraro 2017)으로 지식, 기능, 개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다룬다. 10여 년 전, 융합교육이 도입되던 당시 융합교육 도입의 필요성에서 강조되던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 증진'의 키워드가 개념기반 탐구학습에서는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핵심아이디어와 핵심 질문을 통해 삶과 연결시킨다. 이는 배움의 의미를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사고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도 탐구기반학습을 지향하고 있으며, 창의력 교육에서도 역시 개념적 이해와 전이가능한 이해(transferable understanding)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는 교수자의 철저한 수업설계 아래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개념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사고와 세상을 연결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움의 온전한 이해와 실천적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 새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나온 논문이나 저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국어, 영어, 과학, 사회와 같은 주지 교과를 대상으로 하여 수업예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음악ㆍ미술 등 예술 교과를 다루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할 때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이는 기존의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수업절차나 수업모형이 사실상 지식기반 교과에 적합하며, 실기와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음악 수업에는 다소 맞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념기반 탐구학습 모형개발 연구,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적용 연구, 음악과 수업에서의 탐구모형 적용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모든 교실 수업이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유형화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수업모형의 순서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과(정민수 2024), 음악 개념이 학습되기 위해서는 직접경험이 필요하고, 창작 혹은 연습의 과정과 발표 혹은 표현의 단계가 음악과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수업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음악 학습의 다양한 주제들은 공통된 음악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며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윤관기 2024; 최은아 2024)을 논의의 근거 및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가 적으며 특히 음악과 중심의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실기를 중심으로 한 음악 수업에서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최은아 2024) 깊이 있는 음악 학습에 초점을 둔 단원을 설계하고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음악 교과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 교과의 고유성을 반영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특징과 수업모형을 살펴보고 음악교육 연구집단의 숙의 과정과 기존 관련 수업모형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업설계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개념기반 탐구학습

1.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개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 사회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역량이 중요시된다(교육부 2021). 조호제 외(2023)는 역량에 대해 '상황적 맥락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보다 깊이 있는 학습과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역량은 개념적 이해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개념적 이해는 역량 함양의 핵심이 된다(조호제 외 2023, 79).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새롭게 '개념적 이해'가 강조되는 '개념기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탐구중심 수업을 강조한다.

개념기반 탐구학습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전이 가능한 이해에 초점을 둔 '개념기반 학습'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 '탐구 기반 학습'이 결합된 것이다(Marschall & Freanch 2018). 개념기반 탐구학습은 개념적 이해를 위한 탐구학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념을 탐구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삶으로 전이 가능한 이해를 추구한다. 즉, 학습자가 탐구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개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나 이해를 넘어 개념을 중심으로 전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이해

가.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특징

1) 개념(concept)

Erickson(2017)에 의하면 개념은 새로운 상황과 맥락으로 전이되는 하나의 정신적 구성물로 여러 대상이나 현상의 공통된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다. 즉, 개념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한계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보다 깊은 수준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사고를 유도하고 사고와 삶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개념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종합하여 얻은 보편적 관념으로서 직접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2) 개념적 렌즈(conceptual Lens)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손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개념적 렌즈를 사용하도록 수업을 설계한다(Erickson, Lanning & French 2017). 일반적으로 개념적 렌즈(=개념망)는 광범위한 매크로 개념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으로서 단원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깊이를 더해주며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사고 간에 지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해석적 초점을 제공한다.(Erickson

2017). 이를 통해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며, 깊은 이해와 전이를 촉진시킨다.

3) 일반화(Generalization)

2개 이상의 개념 간 관계를 문장으로 진술한 것이다. 핵심적인 이해, 영속적인 이해 또는 빅 아이디어로 불리기도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아이디어로 표현된다. 일반화는 시간, 장소, 문화, 상황을 넘나들며 전이되는 개념적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기능과 결부된 보다 심층적인 전이 가능한 이해를 나타낸다(Erickson, Lanning & French 2017, 177).

4) 귀납적 접근법(Inductive Instruction)

귀납적 접근법은 학습자가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사실적인 사례를 탐색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을 종합하여 일반화를 형성하는 상향식 학습 방법이다. 이는 특정 교과뿐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학습하여 다양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인 것이다. 개념기반 탐구학습에서는 질문을 통한 능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하여 사례를 탐색하고, 개념을 가로지르는 패턴을 찾아 연결하며, 개념 간의 관계를 발견하여 개념적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학습자 탐구 중심의 귀납적 수업 방식을 강조한다.

5) 안내 질문(Guiding Questions)

안내 질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여 일반화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질문(Inquiry Questions)으로 표현되었다. 교사들의 안내 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의 사고에 비계(scafolding)를 제공한다(Marschall & French 2018; 신광미 강현석 외 2021, 63). 안내질문은 크게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적 질문은 단원의 학습 내용에 관한 것으로 지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질문은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실적 예시나 사례 연구를 포함하나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 전이될 수 없고 시간, 공간, 상황 등에 한정된다. 개념적 질문은 학생이 자신의 사고를 깊이 있는 전이 가능한 이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논쟁적 질문은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하는 질문으로 사실적이거나 개념적일 수 있지만 정답은 없는 형태로 작성된다. 이러한 질문은 학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데 유용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전이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개념기반 학습에서의 질문에 대해 노진규(2022)는 '탐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상황으로 전이를 전제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학습자는 질문을 통해 개념과 관련한 의미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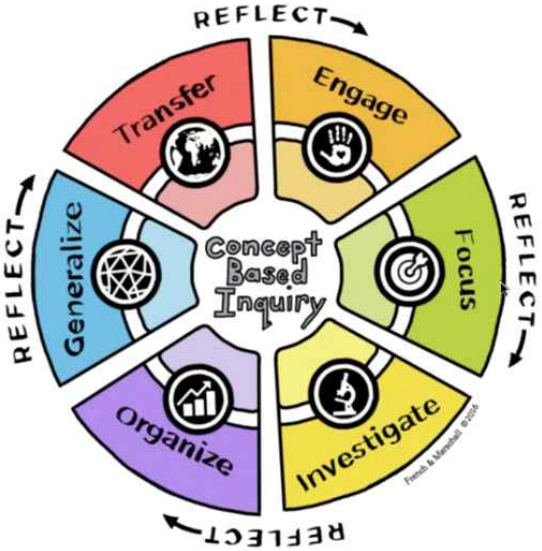
6) 평가

개념기반 탐구학습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학습한 개념에 대한 지식·이해, 과정·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예측, 가설, 정당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학생들이 개념을 적용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일

반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조호제 외 2024, 31~32).

나. 개념기반 탐구학습 모형

Marschall과 French는 개념 형성, 일반화 개발, 개념의 전이를 탐구과정에 중심을 두고, 개념과 개념적 이해가 어떻게 탐구기반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두어 개념기반 탐구모형을 제시하였다(조호제 외 2023, 99).



[그림 1] 개념기반 탐구모형(Marschall & French 2018)

이 모형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학습과 지도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는 수업의 맥락에 따라 반복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1) 관계맺기(Engage)

이 단계는 배우고자 하는 주제에 학습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자신의 경험과 사전지식을 주제와 연결시킨다.

2) 집중하기(Focus)

이 단계는 학습자가 단원과 관계를 형성한 후, 개념 형성 전략을 사용하여 단원의 핵심 개념이나 개념적 렌즈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3) 조사하기(Invesigate)

이 단계는 개념적 렌즈와 주요 개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확인한 후 시작하는 단계로, 단원 개념들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적 예시와 기능들을 탐구한다.

4) 조직 및 정리하기(Organize)

이 단계는 학습자가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배운 내용 속의 패턴들을 살펴보며 사실적·개념적 수준에서 사고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후 일반화하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5) 일반화하기(Generalize)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사실과 기능을 바탕으로 개념적 이해를 설명한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배운 것과 연결하면서 개념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일반화로 결론을 도출한다. 이 단계는 개념적 렌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전이 가능한 이해로 이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6) 전이하기(Transfer)

이 단계는 학습자가 일반화를 형성한 후 이를 적용하거나 전이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개념적 이해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면서 점검한다.

7) 성찰하기(Reflect)

이 단계는 탐구의 단계로 구분되기보다 개념기반 탐구 모델의 각 단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메타인지적 사고를 활용하여 단원에서 습득한 지식, 기능, 이해가 학습자 자신의 생각과 관점,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활동이다(Marschall & Freanch 2018, 44~49).

3. 음악 교과의 개념기반 탐구학습

가. 음악 교과의 고유성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은 소리를 기반으로 한 예술로 소리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사회·문화적 양상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교육부 2022, 6). 음악 교과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한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소리 경험을 통해 미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자기 몸과 감각을 인지하는 체험으로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자신이 소리를 수용하며 느낀 감정, 생각 등을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자신의 소리로 표현하는 일뿐 아니라 표현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교과에서 대체할 수 없다.

한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해 영역이 삭제된 후 음악 교과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학습 대신 실기와 활동 중심 수업이 강조된 경향을 보인다(오지향·문경숙·최미영 2014). 음악 교과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드는 실제적인 수행이 필수적으로 과정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기반 교과이다. 그러나 음악적 사고와 음악 활동의 근간은 음악 개념에서 시작되며,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연주, 감상, 창작 활동은 의미 있는 음악 학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이홍수 1989, 150). 음악 수업은 개념을 바탕으로 소리를 통해 신체와 지각,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 혹은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과정과 산출물로서 개념적 이해를 형성한다.

음악은 신체 감각을 지각하고 반응하며 추상적이면서도 관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그 중심에 심미적 경험이 존재한다. 심미적 경험은 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태도적 특성의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이 고차적인 심미적 경험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지적 특성, 즉 인식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대상의 형식과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이 소리로 통합적으로 느껴질 때 심미적인 조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음악 개념은 바로 음악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심미적 경험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음악 교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개발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Marschall과 French가 제시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모형은 개념, 개념적 이해, 개념의 전이에 집중하여 모형을 전개한다. 그러나 위 모형은 사회, 과학과 같은 탐구를 기반으로 한 교과가 아닌 음악이나 미술과 같이 심미적 경험이 중요한 예술 교과에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음악을 비롯한 예술 교과는 감각 경험을 통해 스스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기도 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좀 더 복잡한 개념을 학습하기도 한다(Wiggins 2018, 26). 학습자가 창작과 표현, 몰입된 감상의 과정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작품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불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의미를 깨닫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음악 수업에서는 감각적 경험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효하게 활용하고, 학습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념을 적용하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음악 수업은 단순히 개념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노래하기, 연주하기, 작곡 및 창작하기, 감상하기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포함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음악 개념적 이해를 형성하기 위한 작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필수로 하며, 나와 작품, 혹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타인과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교류 과정을 수반한다. 음악적 개념은 소리, 음악 작품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표현과 수용의 총체적인 경험 속에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선형적이고 반복적인 정교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음악과의 특성이기도 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탐구와 개념기반의 깊이 있는 학습'을 꾀하는 만큼(교육부 2022) 그에 부합하는 음악 수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교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이 요구된다.

Ⅲ. 수업모형 개발 및 수업설계 방안

1.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교육과정학자인 Schwab은 1969년, 1971년, 1973년, 1983년에 출간한 <The Practical> 시리즈에서 교육과정 개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참여가 없이 이론만 적용하여 개발하는 교육과정은 실천적 측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chwab에 대한 긍정적 혹은 비판적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그의 실제적 접근(the practical)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한나, 정광순, 백성혜(2021)는 Schwab의 논의를 근거로 실제 개념에 대해 '실제로 개발된 교육과정 자체이자 교육과정 개발연구에서 연구하여 축적해야 할 연구물'이며, '실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개발된 내용은 교육현장에 부정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합하도록 개발될 때 가장 적확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다'(이한나·정광순·백성혜 2021, 54~55)고 보았다. 그리하여 실제적 접근법의 3단계로 '실제 숙고하기(문제 인식 및 발견하기, 문제 구체화하기) - 실제에 정합하는 이론 만들기(관련 이론 및 사례 검토, 실제에 맞추기) - 실제 만들기(교육과정 개발해 보기, 유사실제로 검증 및 타당화하기)'에 따라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역시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음악과 수업모형 개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사집단의 숙의를 거쳐 관련 이론 및 사례를 탐색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검증, 타당화함으로써 최종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연구 절차	연구 내용
1	문헌 연구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및 적용 관련 선행연구 고찰 -개념기반 탐구학습 분석
2	개발 연구	-연구집단 숙의 -개념기반 탐구학습 관련 수업모형 분석 -수업모형 초안 도출 -전문가 검토를 통한 타당화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 보완 -수업모형 최종안 구성
3	실행 연구	-수업모형 적용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교육 현장 경험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의미와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대한 인식을 살펴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집단은 교사공동체로서 음악교육 및 교육공학을 전공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 및 수상, 집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중등학교 음악교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연구집단

영역	소속	교육 경력	직위	최종 학력
A	중학교	25년	음악수석교사	음악교육 석사졸업
B	고등학교	11년	음악교사	교육공학 박사수료
C	중학교	18년	음악교사	음악교육 박사졸업
D	중학교	17년	음악교사	음악교육 석사졸업

연구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수업-평가 혁신,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음악과 특성을 살린 새로운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의 개발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를 설계하고 숙의를 통해 모형을 개발한 후 전문가들에게 안면 타당도를 의뢰하였다.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모형을 실제 음악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업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의 기초

가. 수업모형 개발의 방향 도출

먼저 연구자들은 음악교육의 목적과 수업의 과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모형의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자신이 이해하고 추구하는 음악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지역과 세부전공이 다른 연구자들의 대화에서 각자의 키워드를 범주화하였다. 1차적으로 범주화된 키워드는 유사성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적과 과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표 3〉 키워드 종합 내용

목적	과정	방법
-감정 및 내면 등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 음악적 소통, 공감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 영위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한 음악 정서 함양 -소리에 대한 민감성 향상 -아름다움 내면화 -창의성 개발 -예술적 안목 발달 -음악 기능 향상을 통한 음악적 소통 역량 신장 -예술적 시민성 함양 -문화 계승과 새로운 문화 발전	-교사와 학생의 교류, 공감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설계 -활동 중심의 교사-학생 상호작용 -음악 기본 개념 이해하고 표현 -학생 삶과 밀접한 관련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내용 -필요에 따라 비선형적이나 맥락적이고 유기적인 수업구성 -체험 중심, 표현 중심, 수행 중심의 음악 다루기 -직접경험 위주로 실제적인 접근 필요	-안내자 역할의 교사, 주도적인 학생으로 역량 발휘 -다양한 매체 활용 -디지털 에듀테크, AI와 블렌디드 학습을 통한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 -소리와 음악이 신체화된 인지로 적용 -소리에 대한 탐구 -흥미와 재미 -일회성 활동 지양, 내면화된 교육 -소리와 음악을 실천적으로 수행하여 사고 자극

〈표 4〉 수업모형 개발 방향

목적	과정	방법
-감정 및 내면 등 음악을 통한 자기 표현, 음악적 소통, 공감 -연주하고 듣고 만드는 다양한 음악 경험 -창의성 및 예술적 안목 향상	-학생 삶과 밀접한 관련 -비선형적, 유기적 수업구성 -직접경험, 표현, 수행을 통한 음악 다루기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실제적 접근	-다양한 매체 활용 -소리와 음악에 대한 탐구 -소리와 음악이 신체화된 인지로 적용 -내면화된 교육 -삶에서의 실천

이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된 수업모형 설계의 방향은 <표 4>와 같다. 연구집단이 도출한 음악과의 목적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감정과 내면, 생각 등 자신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창의성과 예술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업 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선형적이면서도 유기적이고 맥락적인 수업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과, 학습자의 직접경험, 표현, 수행을 통한 음악 경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매체 활용과 신체화된 인지를 통해 소리와 음악을 탐구하고 내면화하며, 이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수업에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음악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기존의 개념기반 탐구학습 관련 수업모형을 탐색하여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관련 수업모형 탐색

음악 교과에 적합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수업모형 5가지를 선별하여 탐색하였다. 그중 Marschall과 French(2018)의 개념기반 탐구모형 7단계는 2장에서 설명하였으며, 나머지 4개 모형의 각 수업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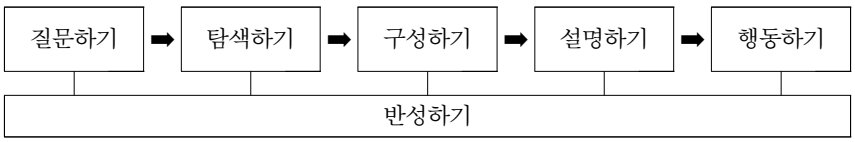
〈표 5〉 개념기반 탐구학습 관련 수업모형들의 단계

	수업모형	단 계
1	IB PYP 탐구학습 과정	(6단계) 질문하기→탐색하기→구성하기→설명하기→행동하기→반성하기
2	BSCS 5Es 모형	(5단계) 참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
3	개념기반 수업모형	(4단계) 개념인식→개념연결→개념구현→개념전이
4	LCE 탐구과정	(4단계) 예술 작품 만들기→질문하기→맥락 정보(탐색)→성찰

1) IB PYP 탐구학습 과정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교육과정은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1968년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PYP(유·초등학교 교육과정), MYP(중학교 교육과정), DP(진학계 교육과정), CP(직업계 교육과정)의 4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중 PYP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업설계 모형은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 Kath

Murdoch의 탐구 주기 모형(inquiry cycle)에서 차용하여 설계한다(김미강 2017, 181). 자기 성찰과 동료평가, 피드백을 통한 반성하기 단계가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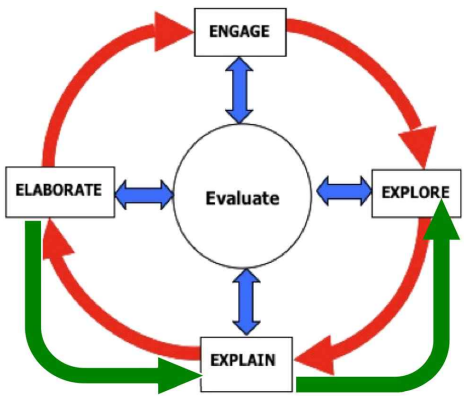


[그림 2] IB PYP 탐구학습 과정

출처: 조호제 외(2023). 364쪽.

2) BSCS 5Es 모형

Bybee(2009)의 5Es는 BSCS(Biological Sciences Curriculum Study), 즉 생물과학 교육과정 연구에서 사용된 수업모형으로 참여(Engagement)→탐색(Exploration)→설명(Explanation)→정교화(Elaboration)→평가(Evaluation)의 앞글자 E를 따서 붙인 모형 이름이다. 이 모형은 학생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탐색을 기반으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한 학습내용을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정교화하는 단계를 거친다. 1단계 참여와 2단계 탐색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는 역으로 환류 가능하며 평가를 중심으로 순환 반복된다. 각 단계는 교수자의 평가에 반영되며 다음 단계의 진행을 위한 기반이자 근거가 된다. 본 모형을 활용하여 신체와 감각을 기반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음악 교과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선형적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3] Bybee(2009)의 5Es를 Geiger 외(2018)가 도식화한 모형

출처: Geiger, V. et al.(2018). 220쪽.

3) 개념기반 수업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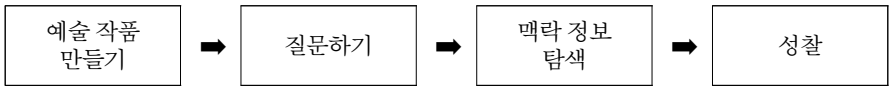
정민수(2024)는 기존의 '개념 탐색-맥락 이해-증거 결정-상황전이'의 4단계의 개념기반 수업의 모

형 단계가 교수자 중심으로만 설정된 수업모형이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문제 인식에 의해 연구자들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개념 인식-개념 연결-개념 구현-개념 전이'라는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개념기반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 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학습자 주도성 관점(Student agency)과 교수자 주도성(Teacher Agency)으로 구분하여 성찰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개념기반 수업모형의 단계는 참여하는 교사들과 자문하는 전문가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림 4] 정민수(2024)의 개념기반 수업모형

출처: 정민수(2024), 앞의 논문, 32쪽.

4) LCE 탐구과정(LOI, Line of Inquiry)



[그림 5] LOI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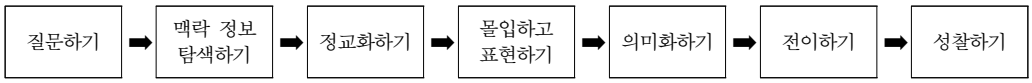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위해 설립된 링컨센터 산하의 예술교육기관인 LCE는 그들의 고유한 예술교육 모델인 LOI(Line of Inquiry)를 소개하고 있다(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 76). '예술 작품 만들기→질문하기→맥락 정보(탐색)→성찰하기'로 구성된 이 과정은 예술교육에 탐구과정을 접목하여 기존 지식 중심의 탐구과정에서 벗어나 예술의 특성을 담아낸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정 예술 작품의 '세계'를 구성하는 맥락 정보를 조사 및 탐색하고, 지속적인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예술 형식의 요소와 재료에 대한 능동적인 탐구 및 조작을 통해 창조적 과정을 거치는 예술 중심의 탐구과정이다. 이 과정은 '살아있는 예술 작품(a live Work of art)'과의 만남을 중시하며 이것은 학습자의 직접경험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예술성 활성화를 위해 영상이나 인쇄된 2차 자료가 아닌 실제 공연장에서의 관람, 미술관 전시 탐방 등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의 역량과 같은 LCE 예술교육의 10가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탐구 전반, 즉 수업의 전, 중, 후 동안 '목적이 있는 질문'이 수업을 이끌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으로 4가지 수업모형들을 살펴본 결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핵심을 '학습자 중심', '질문을 통한 탐구학습',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전이', '지속적인 성찰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제

이 4가지 핵심내용과 더불어, 앞서 음악교육의 실제 학교 교육 현장의 연구집단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음악 교과의 고유 특성을 살린 개념기반 탐구학습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수업모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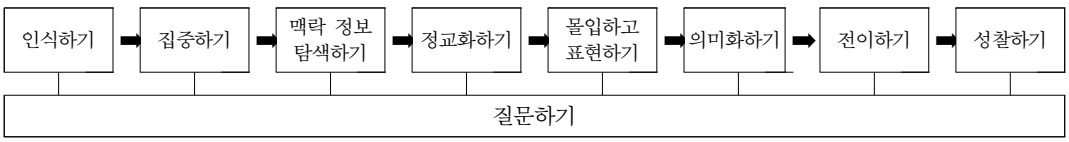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은 개념기반 교육과정과 개념기반 탐구학습에 대한 고찰 결과, 기존 관련 수업모형 분석 결과, 연구집단에 속한 음악교사들의 음악교육에 관한 이해를 종합하고, 지속적인 숙의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다. 음악교육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수업모형의 초안은 '질문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정교화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의미화하기→전이하기→성찰하기'의 7단계이다.



[그림 6]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초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음악 교과의 특성인 '몰입하고 표현하기'를 반영한 점은 좋으나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을 받았다. 첫째, '질문하기'는 특정한 단계가 아닌 수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의 흥미를 돋우고 분석을 유도하며 관점을 확장하고 개념화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 적합하다는 점과, 둘째, 문제 탐색이나 인식 등의 도입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할 만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여 '질문하기'가 전 과정에 포함되는 '인식하기→집중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정교화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전이하기→성찰하기'의 8단계 1차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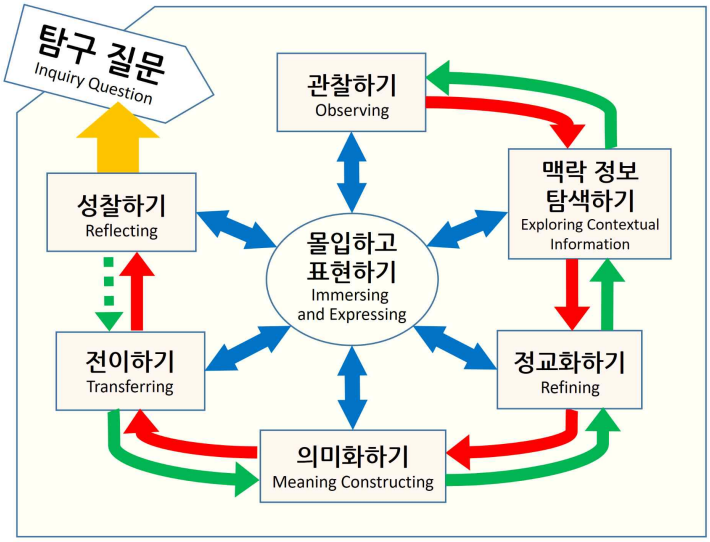
[그림 7]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1차 수정안

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수업단계가 다소 많다는 점과 각 단계가 필요에 따라 순행, 역행 등 비순차적으로도 전개될 수 있다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특정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 음악과 고유의 특성인 '몰입하고 표현하기'는 어느 단계에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도록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2차 수정안(최종안)을 작성하였다.

최종안은 '관찰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정교화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의미화하기→전이

하기→성찰하기'의 7단계로 구성되며, 학습자들이 탐구해야 할 중심 문제인 뾰족한 오각형의 탐구 질문이 전체 수업을 촉진하며 이끌어간다.

이 수업모형의 특징은 첫째, 음악과 특성을 살려 '몰입하고 표현하기'를 중심에 놓고 '관찰하기'부터 '성찰하기'까지의 과정 동안 '몰입하고 표현하기'로의 용이한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둘째, '탐구 질문'이 수업의 전 단계에 걸쳐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셋째, 비선형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습자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정교화하기 위해 모든 단계가 순행, 역행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생략하거나 건너뛸 수 있다. 넷째, 한 과정의 마무리 단계인 '성찰하기'에서 '전이하기'로의 역행은 성찰활동 중의 메타인지로 인해 새롭게 전이되거나 전이된 개념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다섯째, 각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성찰하기'에서는 수업 중 습득한 지식을 통해 주어진 탐구 질문을 해결하고 개념을 형성한다는 뜻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탐구 질문과 만남으로써 완결된 경험(Dewey 1934)을 이루어 심미적 경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의 최종안과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음악과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 최종안

가. 관찰하기(Observing)

이 단계는 '관계맺기'와 '집중하기'를 합친 것으로 학습자가 배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학습자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주제와 연결시키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 대상에 집중하면서, 제시된 음악 작품이나 수업의 주제를 포괄적 질문과 함의 방향대로 집중하여 살펴볼 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해가 일어날 수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질문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

을 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활동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이 관계를 맺는 단계이다.

나. 맥락 정보 탐색하기(Exploring Contextual Information)

이 단계는 '조사하기'와 같이 주제 혹은 단원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 정보들을 조사하고 수집한다. 예를 들어 예술 작품의 경우, 관찰하면서 얻은 감각과 직관만으로는 전체를 충분히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술 언어와 어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이때 제공되는 것이 맥락 정보(임새롬 2022)이다. 맥락 정보란 학습 대상과 관련 있는 시대적 · 문화적 배경이나 작품 의도, 예술가의 개인사, 장르 특성, 형식, 악기에 대한 이해, 문화적 기원 등 대상을 구성하는 맥락적 사실이자 개념을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악곡 조사, 악기 조사, 리듬 조사, 형식 조사 등 지식적 개념뿐 아니라 제시된 활동 과제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조사의 결과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감식의 기준이 아닌 미적 대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로써 대상과의 능동적인 만남을 촉진하고 학습자 개인이 학습내용을 의미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학습주제 혹은 작품과 스스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교사의 조직된 안내와 핵심적인 질문 아래 진행한다.

다. 정교화하기(Refining)

정교화하기는 '조직 및 정리하기' 단계와 유사하며 음악 활동, 즉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창작하는 일련의 기능이 시간과 노력에 의해 정교화되고 기존 개념이 체화되며 그 과정에서 인식되는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깊이 있게 정교화하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해석하기, 연습하기, 제작하기, 조직하기, 정리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라. 몰입하고 표현하기(Immersing and Expressing)

이 단계는 음악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계로서 모형의 중심에 위치하여 모든 수업단계와 긴밀히 상호작용한다. 예술 작품을 몰입하여 감상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내면 등의 자기 해석이 담긴 음악을 몰입하여 표현하는 단계이다. 총체적으로 완결된 표현 혹은 감상 활동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이때 수행자와 수용자의 두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작품을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연주하는 수행자로서 몰입하고 표현하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로서 몰입하고 말이나 글의 언어로 표현하는 입장에 놓인다. 어느 쪽이든 몰입의 경험과 표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가 수업모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이유는 대부분의 수업 현장에서 그러하듯 평가라는 교사 주도의 활동으로 음악 경험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음악교육을 통한 배움이 학습자로 하여금 내면화되고 의미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자기화가 될 때 '음악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남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 의미화하기(Meaning Constructing)

이 단계는 ‘조직 및 정리하기’ 및 ‘일반화하기’ 단계를 합친 것과 유사하면서 음악과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의미화는 학습자 자신이 예술 작품으로부터 받은 느낌이나 음악 경험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학습자 자신의 해석을 형성하는 행위(LCE 2014; 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0)로서 일련의 음악 활동으로부터 얻은 메시지나 감정, 느낌 등을 지적 ·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만의 견해를 만드는 과정이다. 미적 대상이 가진 보편적 특성, 작품에 내재한 의미를 아우르면서 예술 작품을 감지하는 인식의 주관성을 담아낸 표현으로 일반화를 대체한다. 자신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체화된 인지를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은 다른 음악 활동 및 개념적 렌즈를 통한 맥락적인 이해로 이끌기 때문에, 즉 전이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바. 전이하기(Transferring)

이 단계는 학습자가 형성한 의미를 확장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전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개념적 이해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면서 점검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의미화하기’가 자기 내면에서 머물며 새로운 개념과 기존 개념이 새로운 의미로 형성되는 단계라면 ‘전이하기’는 새로운 발견이 외연의 확장을 이루는 형태가 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한 개념을 다른 음악적 맥락에 적용하면서 학습내용을 실제 상황에 연결지을 수 있다. 상상하기, 대입하기, 적용하기, 예측하기, 실천하기의 활동이 가능하다.

사. 성찰하기(Reflecting)

탐구의 마지막 단계인 ‘성찰하기’는 각 단계에 포함되는 성찰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거시적 성찰이자 자기 삶에서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Marschall과 French(2018) 수업모형의 해당 단계와 마찬가지로 메타인지를 통해 학습자가 수업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능, 이해가 자신의 생각과 관점, 태도 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이다. 반구조화된 질문에 숙고하여 답할 수 있도록 일지를 준비하고, 성찰이 ‘나’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너’와 ‘우리’의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작성 후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공유 후에는 이전보다 확장된 자신의 관점을 인식하면서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

4. 수업모형 적용 수업설계 방안

가. 수업의도 및 개요

이 수업은 수업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수업으로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평가자료(2023)에 수록된 수업예시를 일부 차용한 것이다. 선정된 수업의 제목은 ‘프리페어드 피아노가 말한다’로, 음악 작품이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의미하여 ‘말한다’는 동사로 종결되었다. 이 수업은 악기의

재료와 주법, 음색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는 내용으로 피아노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통해 소리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력 및 표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피아노에 여러 장치를 설치하여 타건 시 건반악기와 타악기 소리가 동시에 나는 다채로운 음향 효과가 가능하며,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소음) 및 침묵까지도 음악의 범주로 포함한 플럭서스(Fluxus) 음악을 대표한다. '변화', '움직임', '흐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플럭서스는 1960년대에 전 예술 분야로 확산된 국제적인 예술운동으로 자유로운 재료, 새로운 형식을 통해 작품의 권위에 도전한다. 누구나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예술이 특정 계층만을 위하거나 특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삶과 예술의 조화',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플럭서스의 정신은 '삶의 예술가로서의 실천'과 더불어 특별한 악기 연주 능력이 없어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수업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악기의 재료와 주법의 변화는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핵심질문과 함께 창작과 연주에 필요한 핵심아이디어와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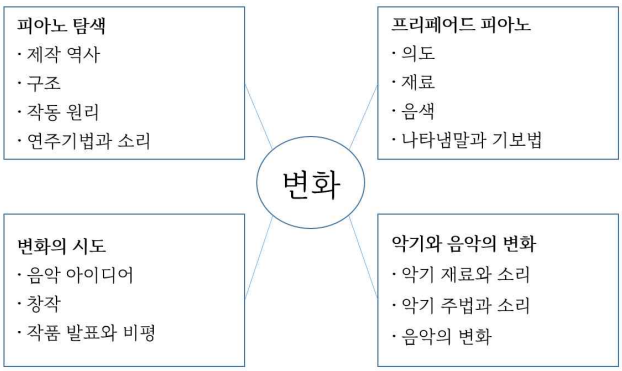
〈표 6〉 개념기반 탐구학습 단원의 개요 예시

<table>
<tr><td>단원명</td><td colspan="2">프리페어드 피아노가 말한다</td><td>대상</td><td colspan="2">중학교 2학년</td></tr>
<tr><td>핵심 질문</td><td colspan="5">악기의 재료와 주법의 변화는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td></tr>
<tr><td>학습목표</td><td colspan="5">악기 음색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피아노 음색을 창작하여 프리페어드 피아노 작품을 만들 수 있다.</td></tr>
<tr><td>하위 탐구 질문</td><td colspan="5">·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나는가?
· 피아노의 소리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 창의적인 음악이란 무엇인가?
· 새로운 피아노 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아이디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음악은 인간과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td></tr>
<tr><td>관련 교육과정 핵심 아이디어</td><td colspan="5">· 음악은 고유한 방식과 원리에 따라 인간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개인적 혹은 협력적 음악 창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과정과 결과물로 나타난다.</td></tr>
<tr><td>하위 핵심 아이디어</td><td colspan="5">· 악기는 고유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료와 연주기법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낸다.
· 음악은 작곡가의 의도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td></tr>
<tr><td rowspan="2">내용 요소</td><td colspan="2">지식·이해</td><td colspan="2">과정·기능</td><td>가치·태도</td></tr>
<tr><td colspan="2">· 음악 요소, 음악적 특징
·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
· 기보법(오선보, 정간보 등), 음악 매체
· 의도, 아이디어</td><td colspan="2">· 적용하여 창작하기
· 발표하고 평하기</td><td>· 음악으로 협력하는 태도
· 자기 주도적인 태도</td></tr>
<tr><td>성취기준</td><td colspan="5">[9음01-01] 다양한 주법과 표현 기법을 향상시켜 노래나 악기로 개성 있게 연주한다.
[9음01-02] 음악 요소와 음악적 특징을 살려 노래나 악기로 발표하고 평한다.
[9음01-03] 소리의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함께 표현한다.
[9음03-01] 음악적 의도나 아이디어를 여러 매체나 방법에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창작한다.</td></tr>
</table>

	피아노 탐색	프리페어드 피아노	변화의 시도	악기와 음악의 변화
스트렌드별 평가방법	· 보고서 평가	· 보고서 평가 · 성찰일지 평가 · 관찰 평가	· 보고서 평가 · 실기 평가 · 관찰 평가	· 보고서 평가 · 성찰일지 평가 · 관찰 평가

나. 개념망

이 단원의 거시적 개념은 변화를, 미시적 개념은 음색, 주법, 의도로 선정하였다. 서양음악의 변천은 시대의 미적 가치뿐 아니라 악기 제작 기술의 발전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작곡가들은 역사와 사회 문화의 흐름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악기 제작 기술의 발달로 개량되거나 새로운 악기가 발명될 때마다 악기 탐색을 통한 다양한 연주기법의 시도를 통해 소리에 변화를 주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였다. 시대의 변화, 재료의 변화, 기술의 변화, 주법의 변화는 음악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원의 각 스트렌드는 학습자가 피아노를 탐구하며 형성되는 악기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다른 악기에 대입하여 음색의 변화를 유추하고 악기별 악곡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현대 음악의 변화를 예상하는 데 전이할 수 있도록 '01 피아노 탐색 – 02 프리페어드 피아노 – 03 변화의 시도 – 04 악기와 음악의 변화'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9] 수업단원의 개념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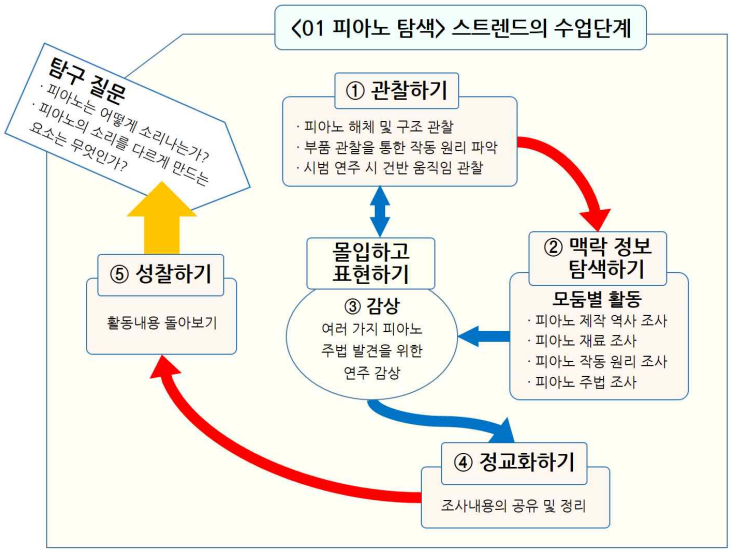
다. 수업내용

1) 피아노 탐색

이 수업은 피아노를 해체하여 직접적으로 내부를 관찰하고, 다양한 피아노 연주 영상을 감상하며 자료조사를 통해 피아노에 대한 역사, 재료, 작동 원리, 주법을 탐색함으로써 피아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피아노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다른 악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전이된 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감상하거나 연주할 때 적용되어 음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피아노는 어떻게 소리나는가?'와 '피아노의 소리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탐구 질문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이 수업은 '관찰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정교화하

기-성찰하기'의 5단계로 진행하되 몰입하고 표현하기는 수업의 중심에서 필요시마다 진행한다. 먼저 관찰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해체함으로써 악기이자 기계로써의 피아노를 대면하도록 한다. 가까이 접근하여 눈으로 각종 부품의 모양과 재료를 관찰하면서 교사의 설명과 시범 연주를 통해 피아노가 작동하며 소리를 내는 원리를 확인한다.



[그림 10] <01 피아노 탐색> 스트렌드의 수업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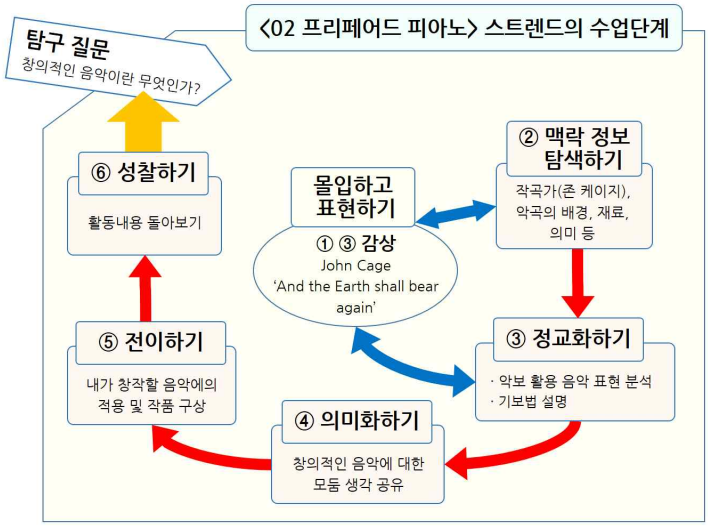
맥락 정보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모둠을 구성하여 각 구성원이 하나의 과제를 받아 그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이다. 피아노의 제작 역사와 피아노의 재료, 작동 원리, 주법 및 기술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피아노 주법 발견을 위한 다양한 연주 영상을 감상하면서 몰입하고 표현하기가 같이 일어난다.

정교화하기 단계에서는 모둠끼리 조사결과를 모으고 목록을 조직한다. 피아노의 내부 구조에서 힘의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피아노를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법마다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이때, 각 주법에 따른 몸의 움직임, 예를 들어 나타냄말에 따른 손가락 움직임을 흉내내어 보고 감각을 느끼고 정교하게 반복해봄으로써 악기 연주라는 음악 행위에 대한 이해가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직접 이해하도록 한다.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전체 활동을 돌아보며 악기의 소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두 가지 탐구 질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프리페어드 피아노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존 케이지의 혁신적인 피아노 소품 제목이자 피아노로의 새로운 시도 및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기존 악기를 활용하여 작곡가의 의도에 맞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한 수업명으로 지정하였다. 첫 단계는 몰입하고 표현하기로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 작품 중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의 배경과 작곡가,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해 맥락 정보를 탐색하고, 교사가 제공한 <And the Earth shall bear again>의 악보를 보며 기본적인 기보법을 이해하면서 반복된 감상을 통해 실음과 이해가 연결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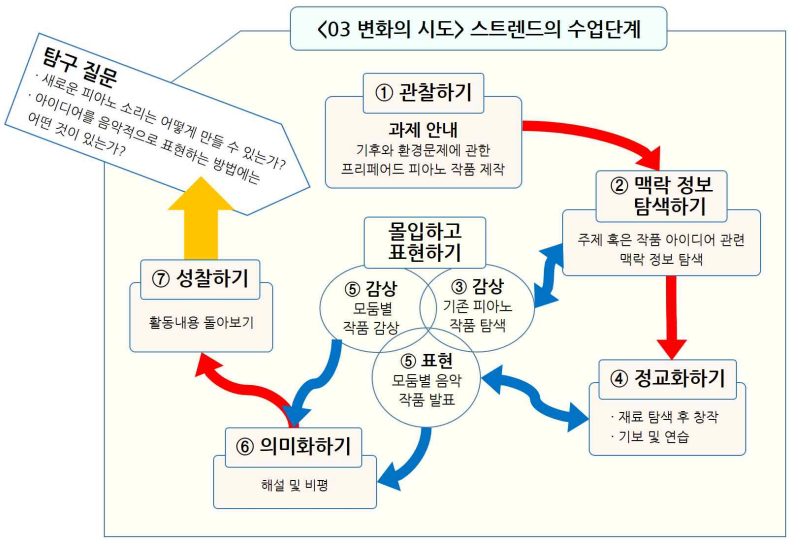
[그림 11] <02 프리페어드 피아노> 스트렌드의 수업단계

의미화하기 단계에서는 존 케이지가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구상한 이유와 당시 음악 예술에 끼친 영향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의 음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기록한다. 창의적인 음악이 가져오는 범주의 균열과 확장을 음악의 변화에 대한 감각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교사의 세밀한 유도가 필요하다. 전이하기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창작한 악곡에 적용하여 새로운 주법과 소리를 탐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성찰하기 단계에서 활동내용을 돌아보며 탐구 질문 '창의적인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3) 변화의 시도

이 수업은 '기후와 환경문제에 관한 프리페어드 피아노 작품 제작'이라는 주제로 프리페어드 피아노 작품을 직접 창작해 보는 단계이다. 세계시민으로서 관심 가져야 할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재활용품을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장치로 삼아 '쓰임'에 대한 관점의 변화 및 실험적인 소리 생성에의 창의성 발현을 의도하였다. 스트렌드명 '변화의 시도'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02 스트렌드에서 감상한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처럼 새로운 소

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세계시민으로서 기후 위기 문제에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뜻한다. 이 수업은 '새로운 피아노 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와 '아이디어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탐구 질문을 가지고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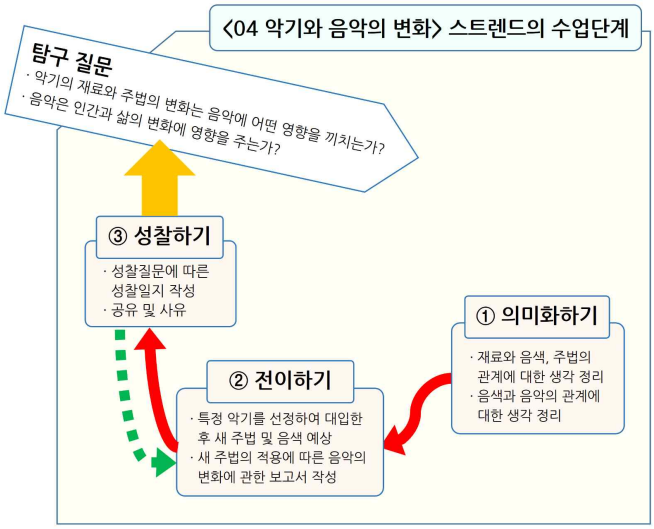


[그림 12] <03 변화의 시도> 스트렌드의 수업단계

관찰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숙지하고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관한 보도 기사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한다. 맥락 정보 탐색하기의 단계에서는 과제의 내용이나 음악적 아이디어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면서, 음악적인 부분은 기존의 피아노 작품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몰입하기의 감상이 병행될 수 있다. 정교화하기 단계에서는 주변의 재활용품의 재료를 탐색하고 프리페어드 피아노의 장치로 제작하여 새로운 소리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창작한 16마디의 곡을 기보하고 피아노로 연습하며 정교하게 다듬는다.

몰입하고 표현하기 단계는 앞서 맥락 정보를 탐색하면서 기존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과 정교화하기 단계 이후 모둠별로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하는 활동으로 수시 진행된다. 이때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음악적 해설과 더불어 이 창작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작품의 의미가 자기 내면에서 의미화되고, 다른 모둠의 작품을 비평하며 같은 과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한 관점과 시도 방법의 다양성을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의미화하기 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활동내용을 돌아보며 성찰을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소리와 아이디어를 음악에 담아내는 창작에 관한 개념을 형성한다.

4) 악기와 음악의 변화



[그림 13] <04 악기와 음악의 변화> 스트렌드의 수업단계

마지막 스트렌드는 '악기와 음악의 변화'로서 세 번째 스트렌드와 연결하여 의미화하기 단계부터 시작한다. 앞의 수업에서 작품에 대한 자기 중심의 의미화를 진행했다면 이번 수업에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료와 음색, 주법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음색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사실과 생각을 정리한다. 전이하기 단계에서는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를 선정하여 피아노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을 대입하였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주법과 그에 따른 음색을 상상해 보고, 이에 따른 음악의 형태나 장르 등 음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전 과정에 대한 성찰질문이 제시된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숙고하며 사유한다. 이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전 단계로의 역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 외의 관점, 즉 친구들의 성찰일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대입하여 다시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악기의 재료와 주법의 변화는 음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사실적 탐구 질문과 함께 '음악은 인간과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가?'라는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관한 변화로의 촉구를 상기시키는 탐구 질문을 되짚어보며 전 활동이 완결되도록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음악과의 입장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고

찰하고, 타 교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Marschall과 French(2018)의 개념기반 탐구과정 7단계 수업모형을 음악 수업에 적용할 때 음악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음악과 고유 특성을 반영한 개념기반 탐구학습 수업모형의 부재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개념기반 탐구학습 관련 수업모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수업모형의 순서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음악 개념이 학습되기 위해서는 직접경험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창작 혹은 연습의 과정과 발표 혹은 표현의 단계가 음악과 고유의 특성이라는 점, 넷째, 음악 학습의 다양한 주제들은 공통된 음악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며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개발될 수업모형이 갖추어야 할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핵심으로서 '학습자 중심', '질문을 통한 탐구학습',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전이', '지속적인 성찰 과정'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수업모형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음악교육 현장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음악교육 연구집단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음악교육의 목적과 과정, 방법에 대해 숙의한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음악과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두 차례 검토받아 탐구질문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관찰하기→맥락 정보 탐색하기-→정교화하기→몰입하고 표현하기→의미화하기→전이하기→성찰하기'의 비선형적 7단계 수업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수업모형의 특징은 첫째, 음악과 특성을 살려 '몰입하고 표현하기'를 중심에 놓고 '관찰하기'부터 '성찰하기'까지의 과정 동안 '몰입하고 표현하기'으로의 용이한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탐구 질문'이 전 단계 동안 수업을 촉진한다. 셋째, 모든 단계가 순행, 역행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 넷째, 마무리 단계인 '성찰하기'에서 '전이하기'로의 역행은 성찰활동 중의 메타인지로 인해 새롭게 전이되거나 전이된 개념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각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성찰하기'에서는 수업 중 알게 된 개념을 통해 주어진 탐구 질문을 해결하고 개념을 형성한다는 뜻으로 노란색 화살표가 탐구 질문과 만남으로써 완결된 경험으로써 심미적 경험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모형의 타당화를 위해 존 케이지의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활용한 창작 수업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수업모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개발된 수업모형은 다양한 음악교육 영역과 교육환경에서의 실증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수업의 각 단계가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연결되고 탐구 질문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이 수업모형의 구조는 음악수업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적 적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수업모형의 실효성을 다양한 음악교육 환경에서 검증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개념기반 탐구학습 방법론, 수업적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음악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효과적인 전이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음악 경험과 삶의 예술가로서의 실천을 도모할 것이다. 개념 학습과 질문, 성찰에 다다르지 못한 채 실기와 수행에 치우쳐진 현장의 음악 수업이 개념기반 탐구학습의 유연하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활용한 이해와 사고의 확장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음악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beethovenian@daum.net

참고문헌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2021. 11. 24 배포 자료].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2021.

_____.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12]. 2022.

_____. 2022 개정 교육과정 수업-평가 안내 자료 <중학교 음악>. 교육부·대구광역시교육청. 2023.

김미강. 한국어 수업에서의 IB 교육과정 도입 및 프로그램 설계:국내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7). 169-188, 2017.

오지향·문경숙·최미영.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고찰: 음악 개념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187-207, 2014.

윤관기. 생성형 AI인 'Text to Music'을 집단탐구모형에 적용한 음악 창작지도 설계 방안. 음악교육연구, 53(1). 143-164, 2024.

이수진. 국어과 탐구 기반 수업 방안 연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76. 154-177, 2023.

이한나·정광순·백성혜. 교사의 실행에 기반한 융합수업 모형 개발. 통합교육과정연구, 15(3). 49-72, 2021.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89.

인천광역시교육청. 질문하고 생각하는 탐구 기반 수업ㆍ평가 자료. 인천교육-2023-0121. 2023.

임새롬·민경훈·백성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음악교육공학, 49. 69-93, 2021.

정민수. 개념기반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실행연구. 열린교육연구, 32(3). 15-40, 2024.

조호제·김남준·김정숙·김정윤·김혜숙·박은하·박일수·백종민·채은경·최은아. 개념기반 교육과정 수업 설계의 이론과 실제. 박영Story. 2023.

조호제·김자영·김유신·양미정·윤서영·조선형·채은경·최은아. IB PYP 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서울형 PYP 모델 구축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교연2020-42. 2020.

조호제·김정윤·김혜숙·박은하·박일수·백혜조·이지은·임유나·임재일·최한올·한진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념기반 탐구 단계별 생생 수업 활동전략: 개념기반 수업, 이렇게 한다!. 박영Story. 2024.

최은아.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기초한 음악과 수업 설계 방안 탐색. 음악교육공학, 60. 21-41, 2024.

하근희·최규홍·이수진·황미향. 초등 교실에 적합한 국어과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 초등교육연구논총 36(4). 1-33, 2020.

Bybee, R. W. *The BSCS 5E instructional model and 21st century skills. In Paper commissioned for the workshop on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science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21st century skill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Board on Science Education. 2009.

Dewey, J. *Art as experience.* UK: Penguin Books. 1934.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 예술. 나남. 2016.

Erickson, H. L., Lanning, L. A. & French, R. *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for the Thinking Classroom.* CA: Corwin. 2017. 온정덕·윤지영 역. 생각하는 교실을 위한 개념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 ㈜학지사. 2019.

Geiger, V. et al.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designing online learning: Fostering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capabilities in mathematical modelling.* ZDM. 50(1). 217-232, 2018.

Marschall, C. & French, R. *Concept-Based Inquiry in Action: Strategies to Promote Transferable Understanding.* CA: Corwin. 2018. 신광미·강현석 역. 생각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한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실천-전이 가능한 이해의 촉진 전략. ㈜학지사. 2021.

Schwab, J. J.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 The School. Review. 78(1). 1-23, 1969.

Schwab, J. J. *The practical: Art of eclectic. The School Review.* 79(4). 493-542, 1971.

Stern, J., Ferraro, K. & Mohnkern, J. *Tools for Teaching Conceptual Understanding, Secondary: Designing Lessons and Assessments for Deep Learning.* CA: Corwin. 2017.

Wiggins, J. *Teaching for Musical Understanding.* Boston:Mcgraw-Hill. 2001. 최은식·권덕원·석문주·신지혜·신혜경·오지향·윤문정·이수진·정재은·최미영 역. 음악적 이해를 위한 교수법. 교육과학사. 2018.

https://retreats.professionallearninginternational.com/invitation-concept-based-inquiry-course

음악교육공학(제61호, 2024. 10. 16)

<Abstract>

Development and Instructional Design of a Concept-Based Inquiry Learning Model for Music Education

Saerom Im · Sehee Lee

This study begins with the issue that existing models of concept-based inquiry processes generally fail to captu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music education, which involves creation, practice, immersion, and express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usic class model applicable to concept-based inquiry learning. To achieve this, we examined the features of concept-based curricula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usic education, analyzed existing related instructional models to derive their features, and then developed a seven-stage instructional model. This model, which incorporates feedback from a music education research group and expert reviews, was applied to music classes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change." The seven stages include: 'Observing,' 'Exploring Contextual Information,' 'Refining,' 'Immersing and Expressing,' 'Meaning Constructing,' 'Transferring,' and 'Reflecting.' The focus on 'Immersing and Expressing,' a core characteristic of music education, is central to this model, with the structure allowing for flexible transitions to 'Immersing and Expressing' from other stages as needed. This model is suitable for forming music concepts and transferring them to other musical areas, thus promoting enriched musical experienc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life. It is expected that this model will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various applications of concept-based inquiry learning in music and practical approaches to instructional methods in the future.

KEY Words: Concept-Based Curriculum, Concept-Based Inquiry Learning, Music Education Instructional Model, Music Education Lesson Design, Immersion

■ 접수일(2024년 8월 31일), 수정일(2024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2024년 10월 14일)